

웅진, 서울대와 폴리실리콘 공정 연구

태양광 기초소재 생산기업 웅진폴리실리콘은 8월16일 서울대학교에 <웅진폴리실리콘 산학협력연구실>을 열었다.



웅진폴리실리콘과 서울대학교 화학공정 신기술연구소 지능공정시스템 연구실은 2011년 7월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연구실을 설립해 폴리실리콘(Polysilicon) 신 공정을 개발하고 제조공정 최적화 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.

또 웅진과 서울대의 인적교류 및 직원 위탁교육,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인턴십과 현장실습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.

백수택 웅진폴리실리콘 대표이사는 “산학협력연구실을 통해 폴리실리콘 생산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한 공정을 개발하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1/08/16>